

나주배원예농협, 수출 배 관리 엉망

선과장에 20일 넘게 장기간 야적 정상적인 배 보관 불량으로 썩어 수급조절 이유 정품합격률도 낮춰 배 수출 전문가 없어 농가 피해만



농가에서 출하한 배가 나주원협 선과장 마당에 아적돼 있다.

나주배원예농협(이하 원협)이 수출 배 계의 조합원들의 배를 엉망으로 관리해 농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배원예농협에 따르면 1962년 첫 나주배 수출을 시작으로 2014년 700만달러, 2016년 800만달러, 지난해는 3600 t을 수출해 1000만달러를 달성했다.

나주 배는 즙이 많고 달콤해 해외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해마다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나주지역에 수출 배 계약 농가들은 수출 실적과는 달리 보이지 않은 피해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원협에 배 수출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관리시스템 부재로 농가 피해가 크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부덕동 나주배원협 선과장에서 해마다 배 수출 시기가 되면 농가들로부터 배를 납품받아 20일 넘게 장기간 상온에 방치해 정상적인 배가 선과를 하기도 전에 보관불량으로 썩는다"고 주장했다.

이러 조합원들은 "환율 등으로 수출이 저조할 경우 계약 농가의 배를 책임질 수 없어 수급조절을 위해 선과 과정에서 정품합격률을 낮추는 등 정상적인 배가 비품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보관불량과 선과 정품합격률을 임의로 조정해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본보 취재결과 최근까지 부덕동 선과장 마당과 임시 천막 가건물에는 선과를 기다리는 배 컨테이너가 장기간 쌓여 있었다.

특히 임시 천막 가건물 안에는 물이 고인 맨홀과 수로가 있어 수출 선과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는 의심케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삼석 소장은 "배는 상온에서 30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 야외에 장기간 야적해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며 "냉장창고가 부족하다라도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잘 돼야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수출과 관련한 전문자가 없다는 점도 농가의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주는 연간 6만여t의 배를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이중 10%를 수출하지만, 명성과는 달리 나주시와 원협에 배 수출 전문가가 없어 수출정책이 추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원협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바이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과 농가에서 바이어를 소개해 줘도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원협 관계자는 "순서를 정해 농가에서

임시천막 가건물 안에 오염된 물이 고여있는 맨홀.

입고를 받고 있는데 냉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말과 비가 오는 날이 겹치면 장기간 쌓아 놓게 된다"며 "하지만 배 겹질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냉장 보관하면 과피흑병 현상으로 검게 변해 통상적으로 1-2주 햇빛에 말리는 예건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예건은 농가에서 배를 생산하면서 충분히 했다"며 "수출이 저조할 때는 수출에만 국한하지 말고 선과해 백화점이나 온라인에 판매하면 될 텐데



상품성이 떨어진 배가 선과장 마당에서 썩고 있다.

비품율을 높여 할값에 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박차

을 지원업체 '천년가향' 선정

나주시가 지역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봉황면에 있는 천연발효식초 생산업체 '천년가향' (대표 하화숙)을 선정, 제품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업6차산업 지원정책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은 소자본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가공 및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기반 조성을 비롯해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장, 유통 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각종 컨설팅, 우수지역 벤치마킹 제품 홍보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달 23일 봉황면 '천년가향' 식초가공장에서 준공식을

갖고, 제품 시음회 및 공장 내부시설을 둘러봤다.

'천년동안 변치 않는 향이 머무른다'는 뜻의 천년가향은 나주 특산물인 배를 비롯해 외송, 산사열매, 사과, 현미, 황칠 등을 재료로 천연발효식초를 생산하는 단계별 내부시설(준비실, 발효실, 숙성실, 포장실 등)을 갖췄다.

하화숙 천년가향 대표는 "지난 10년간 오직 발효식초만 보고 달려왔으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에 힘입어 무사히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됐다"면서 "발효식초가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 가족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건강한 천연발효식초 생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목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설업 업체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시립합창단 11일 정기연주회...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나주시립합창단(단장 위광환)이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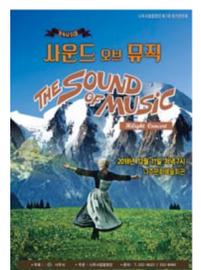
이번 공연 장르는 가족뮤지컬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작인 '사운드 오브 뮤직' (Sound Of Music)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만 1000회 이상 공연할 정도로 뮤지컬계의 흥행보증수표다.

또 1965년 영화로도 제작돼 전 세계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꼽힌다.

특히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펼쳐지는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등 주옥같은 노래들은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중·고교 음악수업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곤 한다.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무대화한



이번 뮤지컬 공연은 시립합창단원과 소년소녀합창단원이 각각 배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연말 가족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문화를 통한 건강한 즐거움을 얻길 바란다"며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직접 무대를 꾸미는 우리 시립합창단원과 소년·소녀합창단원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r



영산포 홍어거리 일대 웅벽이 재미있고 신뜻한 벽화로 새 단장됐다. <나주시 제공>

영산포 홍어거리 웅벽 신뜻한 벽화로 새 단장

450m구간 색다른 볼거리 제공

나주시가 영산포 홍어거리 일대 웅벽에 재미있고 신뜻한 벽화로 새 단장했다.

나주시는 지난 3월 전남도 주관 '2018 도민이 가꾸는 남도경관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영산포 홍어거리-황포돛배선착장-영산나루 450m 구간 웅벽 벽화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벽화 조성사업으로 영산강,

홍어, 황포돛배, 영산포등대, 영산강다리, 양암바위 등이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황포돛배 선착장 계단 입구와 홍어거리 공중화장실 앞에 여행 속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했다.

높이 2.4m의 포토존은 홍어를 낚는 모습과 황포돛배를 끌어당기는 모형을 입체화 벽화로 표현했다.

특히 남·여 공중화장실 입구에는 수컷

홍어와 암컷 홍어를 트리아트로 표현해 재미를 더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영산포를 대표하는 소재로 스토리텔링한 벽화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경관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산포 근대거리 경관조성사업 등 지속적인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우수상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

나주시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나주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조성 및 복지수준 전반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복지급여와 관련해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및 수시 조사를 실시하며,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남형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제도가 날로 향상되고 있다"면서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실현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광주광역시 | 인구보건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함께 하면 든든 육아 성공비법

슈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 하는 아빠되기!!

육아대디 지지법

아빠들의 육아에 '칭찬, 격려, 응원'하기!!

직장는치문화 제로법

직장맘 & 대디에게 눈치 주는 대신 '배려'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육아훈수 주의법

서툰 육아에 '훈수' 대신 '힘들지'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

든든육아 동참법

품앗이 육아, 아이 안전 지킴이,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직장 가족 이웃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